

tbs라디오 「서울속으로 황원찬입니다」 서울옛보기 (목) 11:15~11:25

e-서울통계로 보는 오늘의 숫자

I·SEOUL·U  
서울통계  
SEOUL STATISTICS

# 서울시 신문 및 독서인구 현황은?

2017. 12. 14(목)

정 보 기 획 관  
(통계데이터담당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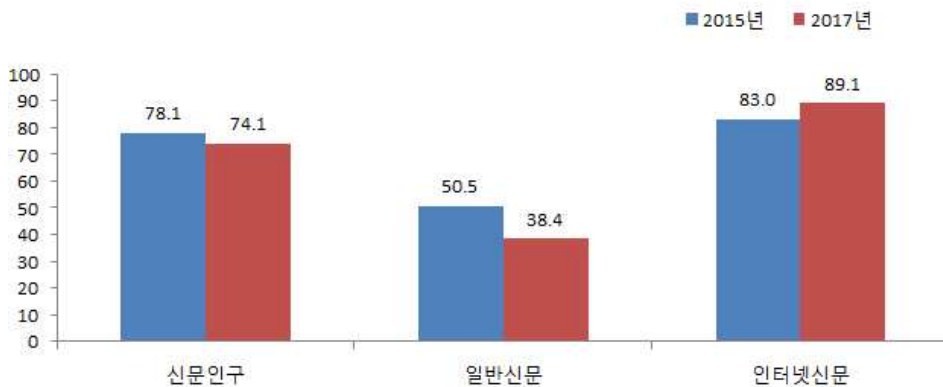
작 성 자 통계데이터담당관 :안정준☎2133-4260 통계조사팀장 : 신욱재☎4284 담당 : 박창현☎4285

## 서울시 신문 및 독서인구 현황은?

- 지난 1개월간 서울시 13세 이상 인구 중 신문을 보는 사람의 비율은 74.1%로 일반신문(38.4%)보다 인터넷신문(89.1%)을 더 많이 보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69.2%) 보다 남성(79.4%)이 더 신문을 많이 보며, 남녀 모두 일반신문보다 인터넷 신문을 더 많이 봄

〈신문 인구〉

(단위 : %)



〈신문 인구〉

(단위 : %, 권)

	신문 인구 <sup>1)</sup>	일반신문					인터넷신문				
		일반신문	거의 매일	1주일 3~4회	1주일 1~2회	2주일 1회	인터넷신문	거의 매일	1주일 3~4회	1주일 1~2회	2주일 1회
2015년	78.1	50.5	43.2	17.6	24.3	14.8	83.0	56.3	24.2	13.8	5.7
2017년	74.1	38.4	49.2	18.1	19.2	13.4	89.1	64.2	21.0	11.7	3.2
남자	79.4	43.1	53.3	18.0	16.0	12.8	88.3	67.8	19.4	10.2	2.6
여자	69.2	33.4	43.7	18.2	23.8	14.3	90.0	60.4	22.6	13.2	3.8

주 : 1) 신문 구독여부와는 관계없이 지난 1개월 동안(2017. 4. 16. ~ 5. 15.) 2주일에 1회 이상 신문을 본 사람

- 지난 1년 동안 서울시 13세 이상 인구 중 독서 인구 비율은 64.4%로 2년 전 보다 1.5%p 증가하였고, 1인당 평균 18.8권을 읽은 것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61.9%)보다 여성(66.7%)이 더 독서를 많이 함
  - 서적종류는 남성은 교양서적 > 직업서적 > 잡지류 순, 여성은 교양서적 > 잡지류 > 생활취미정보 서적 순으로 많이 보는 것으로 나타남

〈독서 인구(복수응답)〉

(단위 : %, 권)

	독서 인구	독서 권수										독서 <sup>1)</sup> 권수
		잡지류	독서 권수	교양 서적	독서 권수	직업 서적	독서 권수	생활취미 정보서적	독서 권수	기타	독서 권수	
2015년	62.9	40.3	6.9	72.6	8.2	40.3	7.1	30.4	4.7	19.9	20.2	17.1
2017년	64.4	36.1	7.5	70.4	9.4	38.9	6.4	27.7	5.6	21.2	25.6	18.8
남자	61.9	34.4	9.0	64.7	9.6	49.6	6.7	24.4	6.4	27.0	25.1	20.9
여자	66.7	37.5	6.4	75.2	9.2	29.7	5.9	30.6	5.2	16.3	26.3	16.9

주 : 1) 독서 인구 1인당 평균 독서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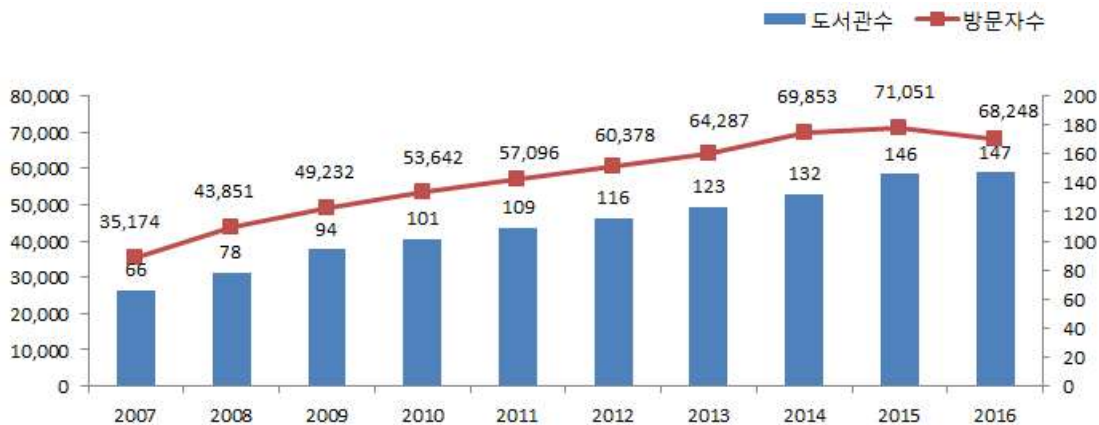
2) 지난 1년은 2016. 5. 16. ~ 2017. 5. 15.이며, 책은 전자책(e-book)을 포함하며, 교과서 및 참고서는 제외함

- 지식정보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 지역주민의 문화복지에 대한 관심증가 및 정부의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확대에 따라 최근 공공서관의 건립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서울시 공공도서관은 2007년 66개소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147개소가 있음. 도서관 방문자수 또한 35,173천명에서 68,247천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함

〈공공도서관 및 방문자수 현황〉

(단위 : 개소, 천명)



〈공공도서관 및 방문자수 현황〉

(단위 : 개소, 천명)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도서관수	66	78	94	101	109	116	123	132	146	147
방문자수	35,174	43,851	49,232	53,642	57,096	60,378	64,287	69,853	71,051	68,248

※ 자료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